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2년 9월 일 (제403회)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제 안 자	산업경제위원장
제안연월일	2022년 9월 20일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2년 9월 20일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 제안 이유

-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 수급 차질, 환율급등, 유가상승, 글로벌 물류난 등으로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반해 국민의 주식인 쌀 가격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실제 작년 10월 80kg 기준 22만 7천원이었던 쌀값이 9월 현재 16만 4천원으로 하락하였고, 정부는 하락하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남아도는 쌀 매입을 시행하였으나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이러한 방식은 쌀값 하락을 만드는 구조가 되어 과다경쟁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올해 벼 생육상황과 소비량 감소추세에 볼 때 향후 쌀 생산량 증가와 가격폭락이 되풀이 될 우려가 높고 과도한 재고량으로 보관 창고마저 부족해서 쌀 수매 대란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쌀값 폭락 방지 등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 불 임 : 건의안

- 보낼곳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수급 차질, 환율급등, 유가상승, 글로벌 물류난 등의 여파로 모든 물가가 오르는 데 반해 유일하게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가격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농자재가격, 비료가격, 농업유 등 농업과 관련된 비용이 상승하면서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실정으로, 실제 지난해 10월 80kg 기준 22만 7천원이었던 쌀값이 9월 현재 16만 4천원으로 6만 3천원이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27만 톤을 매입하였고 3차에 10만 톤 매입을 시행하였으나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추진되어 정부가 정한 입찰 예정 가격 이하로 낙찰가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방식은 쌀값 하락을 만드는 구조가 되어 과다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공매 방식은 발주자인 정부가 예가(預價, 미리 정해 놓은 가격)를 상한선으로 정해놓고 낮은 가격을 써 낸 입찰가격을 우선 매입하는 방식으로, 가격불안 시기에 벼 보유 농가들이 빨리 출하하려는 심리가 작용하여 낮은 가격을 적어내 결국 낙찰가가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특히, 올해 벼 생육상황과 소비량 감소추세를 볼 때, 향후 쌀 생산량 증가와 가격폭락이 되풀이 될 우려가 매우 높고 과도한 재고량으로 보관 창고마저 부족해서 쌀 수매 대란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큼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쌀값이 안정화 되지 않을 경우 농업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쌀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 우리 국민에게는 식량 안보라는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식량주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쌀값 폭락 방지와 쌀값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쌀값 안정화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수입쌀 포함 80만 톤인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 톤으로 확대하고, '21년산 벼 재고량을 즉시 전량 매입해 주십시오.

하나, 논에 타 작물 재배시 국비지원 부활 등 쌀 적정량 생산 및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22년 햅쌀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으로 시장격리를 신속히 시행하여 주십시오.

하나, 농업인들이 쌀값 걱정 없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쌀 수급 안정대책 마련을 제도화해 주십시오.

2022년 9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